



나의 꿈과 미래가 담긴 연구실

최고의 가상현실을 향하여

글_ 임학수 한국해양연구원 기상해양환경센터 연구원 hslim@kordi.re.kr



첨단가상현실기법을 이용하여 IT의 융합기술을 개발, 각분야의 최첨단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기술을 창조한다. 이러한 연구생활이 어렵지만 나의 꿈과 미래를 이곳에서 펼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한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해양연구원 기상해양환경센터는 컴퓨터 가상현실 기법을 해양기술에 접목하여 해양의 환경과 바닷속의 수중구조를 입체적으로 가시화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해저의 지형정보와 위성이나 관측선, 부이(buoy) 등을 이용하여 수집한 관측자료, 그리고 우리 나라 주변 해역을 컴퓨터 수치모형으로 재현한 해수순환과 수온, 염분, 밀도 등의 모델결과를 가상현실 환경으로 표현해 새로운 해양현상을 규명하고 바닷속을 정밀하게 분석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연구원 생활은 시작부터 학교 생활과 달랐다. 연구원은 나이가 지긋하신 박사님들부터 이제 막 학위를 마치고 입문한 박사님들, 그리고 연수 과정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며 맡은바 연구를 충실히 하고 있었다. 학생 식당은 학생들이 대화와 만남의 장소로 조금 소란한데 비해, 연구원 식당은 실험실별로 모여 식사를 하며 연구 이외의 세상 소식과 개인적인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조용한 편이다.

내 전공 분야인 해양에 대한 연구와 컴퓨터 가상

현실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병행하여 수행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연구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 특히 우리 나라 해양의 방대한 관측자료와 다른 연구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다양한 해양환경 자료 그리고 내가 연구하고 있는 최신의 해양수치모델 결과들을 가상현실 시스템에 맞게 자료변환하여 입체적으로 과학적 가시화에 성공했을 때 일에 대한 성취감을 크게 느꼈다. 또한, 지난해 가을 연구원을 대표하여 대한민국과학축전에 연구결과를 전시해 수 많은 어린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찾아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과 질문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을 때와 연초에 미국 포틀랜드에서 열린 해양학회(Ocean Science Meeting)에 참가하여 우리 연구실의 앞선 논문을 발표해 학회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눴을 때 역시 연구에 대한 보람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첫발을 먼저 내디딘 선배로서 이공계 후배들에 하고 싶은 말은 '전공에 대한 공부를 충실히 하고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이를 자신의 일과 접목시킬 수 있는 안목을 키우라'는 것이다. 또한 졸업 후 어느 분야로 진출하든 주변 친구나 어른들과의 올바른 어울림을 배우길 바란다. 사회는 동료나 상사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이고 공동의 목표로 향해하는 선박과 같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부모님과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며, 그 분들에 대한 고마움으로 오늘도 램의 불을 밝히고 있다. **SD**



글쓴이는 아주대학교 토목설계공학과 졸업, 동 대학원에서 연안항만을 전공했다.